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접목하기: 여성운동연구를 중심으로

황진태* · 정현주**

Bringing the Multiscalar Approach into Feminist Spatial Studies: On the Study of Women's Movement

Jin-Tae Hwang* · Hyunjoo Jung**

요약 : 본 연구는 서구 여성주의 지리학을 비롯한 일군의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스케일(scale) 논의를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나타나는 공간성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운동 연구에 있어서 스케일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페미니즘 연구에서 종종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공간 메타포는 사회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메타포로서의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회운동에서 실제로 중요한 인식론적, 실천적 도구가 되는 공간에 대한 탐색을 심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는 마스틴과 브레너를 중심으로 제기된 2000년대 이후 스케일 논의의 주요 쟁점을 수용하여 이러한 논의가 여성운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덜 연구된 미시 스케일의 역할을 조망함으로써 미시와 거시가 연결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옹호하고자 한다. 여성주의의 오랜 투쟁의 대상이었던 공적/사적 분리는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 즉 거시 스케일이 더 영향력 있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종종 맞닿아 있다. 그러나 여성의 영역이라고 인식되는 재생산 영역은 거시 스케일상의 생산과 정치경제와 불가분의 관련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공적/사적 분리와 위계화된 스케일 인식을 단번에 허무는 지점, 즉 사적인 것이 곧 공적인 것이 되고 지구적인 것이 곧 로컬한 것이 되는 지점을 파헤친다. 이를 위해 한미 FTA 반대운동에서 등장했던 유모차 부대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다중스케일적 접근이 한국 여성운동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주요어 : 여성주의, 여성운동, 스케일, 다중스케일적 접근, 가정 스케일

Abstract : This paper attempts to complement the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lack of spatial thinking in Korean women's movement research and to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 on this field of research, by drawing on recent academic discussion on scale developed particularly among the Western critical and feminist geographers. 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following. First, it addresses the need to utilize the concept of scale in women's movement research. Numerous spatial metaphors often proliferated with indiscretion in the feminist approach have rather tended to hinder fully understanding the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s. In order to examine the spatiality of social movements as both conceptual tool and praxis, not merely as metaphor, the paper incorporates main issues in recent scale discours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debate between Marston and Brenner, and explores their implications for women's movement research in Korea. Second, it emphasizes the multi-scalar approach by highlighting the role of micro-scale, the less studied side in social movement literature. The public and the private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6).

* 독일 본 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Ph. D.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University of Bonn), dchjt@naver.com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jung0072@gmail.com

divide, the long time battle ground in feminist research, is often intermingled with the hierarchical scalar understanding which considers the global as more powerful and important than the local. The reproductive realm, however, is indispensably related to production and political economic realm. The paper explores the very site where both the public/private divide and the hierarchical scalar understanding can be dismantled. It is the site where the private becomes public and the local becomes the global (and vice versa). Drawing on a brief example of an anti-FTA movement of women with strollers in Korea, it examines the way the multi-scalar approach advances the understanding of Korean women's movement.

Key Words : feminism, women's movement, scale, multi-scalar approach, the scale of home

1. 서론

국내 여성운동¹⁾ 연구에서 공간성에 대한 관심은 본격적인 여성주의 연구가 시작된 시점인 1990년대부터 대체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사회학자 조은은 1980년대 후반 서울 사당동에서 진행된 재개발사업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에 주목하면서 “공간과 계급과 여성의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조은, 1990, 171)을 밝히고자 했다. 간헐적이지만 그간 일군의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재개발계획으로 인해 철거위기에 놓인 집창촌을 둘러싼 갈등과 저항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여성운동 연구에서 공간성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키기도 하였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부, 2008; 이현재, 2008a; 2008b). 하지만 이들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여성운동 연구에서 공간성에 대한 인식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²⁾

여성주의가 보다 넓은 의미의 방법론으로 수용된 서구 지리학계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공간성을 이론화하고자 한 연구들이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다. 그 가운데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분리가 자본주의 및 가부장제의 구성물임을 밝힌 여성주의 지리학자들의 연구 성과는 지리학을 넘어 여성주의 연구 전반에 상당한 지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현주, 2008, 907; 정현주 옮김, 2011). 남성화된 공적공간과 여성화된 사적공간이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폭로하면서, 여성운동 연구는 그동안 당연시 되었던 사적/공적 공간의 분리와 이에 근거한 차별에 이의

를 제기하고 사적/공적 경계를 넘나드는 공간의 생산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면서 대안적인 인식론적 토대를 마련해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성운동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회공간을 설명할 분석틀과 개념이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되는 쟁점 없이 산발적으로 여러 현안들이 제기되어 온 실정이다(정현주, 2012). 이에 본 연구는 서구 여성주의 지리학을 비롯한 일군의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온 스케일(scale) 논의를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여성운동 연구에서 나타난 공간성의 인식론적, 방법론적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보완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사전적 정의로서 스케일이란 지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 간의 비율을 의미한다. 축척의 비율에 따라서 한국 지도, 동아시아 지도, 세계 지도 등으로 지도화되며, 이 지도들을 통해서 독도자(讀圖子)는 ‘한국’, ‘동아시아’, ‘세계’와 같이 주어진 것(pre-given)으로서 스케일을 인식한다. 인문지리학 연구 내에서 스케일 자체를 정의하는 것에는 여전히 학자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스케일이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다양한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 스케일 논쟁에서 합의된 부분이다(Delaney and Leitner, 1997; Marston, 2000; Brenner, 2001; MacKinnon, 2011). 따라서 특정 사회세력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리적 스케일을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닐 스미스(Neil Smith)는 사회운동에 있어서 스케일의 정치를 최초로 개념화하였다. 그는 1970년대 오

일 쇼크 이후, 도시의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도심재활성화를 추진해 온 뉴욕시정부가 공원의 노숙자들을 공원이라는 대표적인 공공 공간으로부터 쫓아내려하자 노숙자들이 켄 수집, 잠자기, 세탁과 같은 노숙자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노숙차(homeless vehicle)를 고안하여 공공 공간에서 재가시화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를 상위 스케일로부터의 억압에 저항하는 스케일 뛰어넘기(scale jumping)의 한 사례로 제시했다(Smith, 1993). 이 사례를 통해서 스미스는 스케일 연구가 추상적으로 공간의 생산을 언급하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저항의 정치 전략으로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mith, 1993, 97). 이후 스미스의 주장은 스케일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사회운동연구의 중요한 이론적 주춧돌이 되었다(Howitt, 2003).

스케일의 정치는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에 저항하는 여성운동 연구에서도 대안적 인식론과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여성주의 연구에서 공적/사적 공간은 평면상에서 단순히 집을 경계로 이원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스케일이라는 메타포를 차용하는 경우에도 몸, 가정, 근린, 도시, 국가, 글로벌로 이어지는 수직적 위계 공간에 공적/사적 공간을 분리해 위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분법적 인식을 답습하였다. 즉, 몸이나 가정과 같은 미시 스케일은 여성의 사적공간으로 도시, 국가 등의 상위 스케일은 남성적 공적공간으로 연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 사적공간의 분리가 거시, 미시 스케일의 이원화와 접목되어 있다는 사실은 공적, 사적 공간의 이분법을 깨뜨리는 저항이 바로 거시, 미시 스케일을 교란하는 스케일의 정치와 결부될 수 있음(정현주, 2008, 909)'을 시사한다. 상이한 스케일 간의 경합과 상호관계를 드러내는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선형적 스케일의 수직적 위계를 부정하고 이분법적 공간 인식을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는 것이다. 가령 몸이나 가정 스케일의 문제를 도시, 국가, 글로벌 스케일과 연결하여 공문화하였을 때 가정은 사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되며, 여기서 공적/사적 공간의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 또는 무의미해진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적/사적공간의 해체

와 스케일 정치의 긴밀함에 토대하여 스케일이 여성운동에 대한 대안적인 인식론과 방법론을 개척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개념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본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페미니스트 공간연구 중 여성운동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이러한 연구 분야에서 스케일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여러 공간개념이 무분별하게, 또는 메타포로서만 사용됨에 따라 그러한 개념이 사회운동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정현주, 2008). 그러므로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드러난 스케일에 대한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마스톤(Marston, 2000)과 브레너(Brenner, 2001)를 필두로 한 스케일 논의에서 주요 쟁점을 수용하여 이러한 논의가 여성운동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둘째, 사회운동에 대한 공간적 이해와 관련하여 미시 스케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몸, 가정에서부터 글로벌에 이르는 보다 광범위한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재생산의 영역에 있던 여성들은 거시 스케일상의 생산과 정치경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적인 것이 동시에 공적인 것이 되는 지점에서 공간의 이분법적 인식이 비로소 해체되며, 상층부 스케일의 영향력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식의 기존의 위계적 스케일 인식을 수정할 수 있게 된다.

2.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나타난 스케일에 대한 인식

본 장에서는 여성운동을 다룬 연구에서 나타난 스케일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주목해 온 스케일은 대체로 국가, 지역, 도시, 글로벌로 구분된다. 각각의 연구들은 운동의 주체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기에 대항하는 방식을 특정 스케일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국가 스케일을 중심으로 진행된 여성운동 논의를 살펴보자. 군부독재정권 치하의 1980년대의 여성운동은 독자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보다는 민주화 운동의 우산 아래에서 ‘여성노동자’로서 다른 운동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생산체계 내에서의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아직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표출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제도적 민주화가 정착된 1990년대 들어서는 생산의 영역이 아닌 생활세계 안에서 여성의 삶의 전반으로 운동이 확장되고 다양해졌다(조주현, 1996, 139-141). 그동안 침묵되었던 생활세계에서의 여성문제들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전국적 수준에서 국가의 정책형성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그 대표적인 성과로 2000년대에 성매매방지법과 호주제가 폐지되었다(김경희, 2009, 18). 이처럼 ‘여성운동이 출산권, 성폭력, 육아, 기회평등과 같은 여성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여 정당, 정부, 다양한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한 것’을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이라고 부른다(김경희, 2009, 15). 신상숙(2011)은 거버넌스(governance: 민관협치) 개념을 통하여 2000년 이후 여성단체와 국가기구간의 여성정책을 둘러싼 역학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 신상숙(2011)에 따르면 발전주의 시절의 위계적인 관료제 조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친화성을 드러냈는데, 참여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에서 역설적으로 여성정책기구가 주변화 되기 시작하였고, 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성부의 기능이 축소되고, 그동안 정부기구와 갈등과 협력의 긴장관계를 유지해오던 여성단체들은 배제된 반면 보수성향의 여성단체와의 협력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이 퇴보하게 되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여성운동의 전략적인 지리적 스케일을 국가 스케일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비단 여성운동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국내 사회운동은 경험적으로 볼 때 국가 스케일 중심의 운동 전략에 의존해온 역사가 있다. 한국전쟁 이후 저임금 정책에 기반한 발전주의 국가체제에서 누적된 노

동자 및 시민들의 불만이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기점으로 폭발하게 되면서 사회 운동의 여러 주체들이 지역 수준에서보다는 전국적 수준에서의 협상전략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임영일, 1998; 황진태, 2011b, 45). 한국의 여성운동 역시 그 기원과 전개과정에 있어서 국가 스케일에 의존해 온 경향이 분명히 나타난다. 한국 여성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기 여성노동자운동은 항일과 애국, 노동해방이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강인순, 2004). 이후 본격적인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1970년대 산업화아래 등장한 여성노동자 운동으로 촉발되었으며, 그 응집력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수렴되었다. 당시 여성운동은 성차별이나 성폭력과 같은 여성특수문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민주, 통일, 노동해방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변혁운동의 기류와 함께 가는 양상을 보였다(김기선미, 2004). 여성운동진영 내부에서는 민주화와 노동해방이라는 일반과제와 여성의 문제인 특수과제 속에서 어느 쪽에 치중할 것인가에 대한 논박이 항상 있어왔을 정도로 한국 민주화운동은 한국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서 가부장적 발전주의 국가로의 전환이라는 한국 근대사의 정치경제적 흐름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자화를 획책하고 여성노동력의 착취에 기반한 젠더화된 불균등 발전을 근간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국가적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하는 한국여성운동의 특수성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국가중심적 대항 전략은 이후 1990년대 여성운동의 다원화와 전문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행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일상의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지향하면서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요 의제로 설정한 1990년대 이후에도 과거의 논쟁지형인 ‘끼어들기’(기존 저항구도 속에서 여성의 입지를 넓혀가는 전략)와 ‘새판짜기’(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대안적인 저항구도를 만드는 전략) 사이에서 갑론을박은 지속되었다(김기선미, 2004).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또 다른 지구적 변화는 여성의 비정규직노동자화를 가속화했고 여전히 대립적인 남북관계는 노동과 평화/통일이라는 국가적 이슈를 여전히 여성운동의

주요 의제로 설정하게 만든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자칫 인식론적으로 국가 스케일만을 우선시하는 방법론적 국가주의(Brenner, 2004)에 빠질 위험을 안게 되면서, 여성운동이 국가 이외의 다른 스케일에 토대한 공간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회과학에 만연된 방법론적 국가주의를 문제시하는 인식은 세계화 담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Brenner, 2004; 박배균, 2012). 세계화의 여파는 사회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여성운동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새롭게 강조된 스케일은 크게 지역, 도시, 글로벌 스케일로 나뉜다. 먼저 지역 스케일에 초점을 맞춘 허성우(2006)는 지금까지의 “여성운동의 정치적 영역이 ‘국가’로 환원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188쪽)면서, 여성운동이 작동하는 국가 스케일과 지역 스케일 간 차이에 주목해야함을 역설한다. 그녀는 국가 스케일에서는 여성운동이 보수와 진보라는 양대 구도로 나타나지만, 지역 스케일에서는 보수 성향의 조직의 영향력이 강하고, 진보적 여성운동 조직은 미약하다는 스케일 간 차이를 강조했다(허성우, 2006). 박기남(2012)은 좀 더 지역 여성운동 내부의 긴장관계를 파고들었다. 2000년대 초반 지역 여성운동에 대한 기대를 받았던 한국여성민우회를 사례로 97년 경제위기와 이후 신자유주의의 심화로 초래된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하여 여성은 개인화(취업에 대한 불안, 운동의 피로감 가중)에 더욱 매진하면서 민우회 활동이 정체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개인화된 여성들은 민우회와 같은 단체에 의지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 치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역 여성운동이 부활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앞서 소개된 사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을 수준에서의 지역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장수정(2012a; 2012b)은 국가와 시장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형태로서 나타난 지역 돌봄 공동체에 주목하였다. 돌봄이 갖고 있는 관계적, 호혜적 활동은 여성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지만 여성주의

내부에서는 돌봄이 남성적, 경쟁적, 경제적 가치와는 대조되는 여성적, 호혜적, 비경제적인 활동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장수정, 2012a, 4). 돌봄 공동체를 둘러싼 여성주의 내부의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는 현재의 지배적인 자본주의 경제공간에서 대안적 경제공간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돌봄 공동체는 사회적 재생산의 논리가 작동하는 몸과 감정이라는 스케일을 넘어서 공동체라는 새로운 스케일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국가 스케일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성운동 연구에 국가 아래의 스케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지역 이외에도 도시 역시 국가 스케일에 대립되는 스케일로서 구체적이고, 국지적인 특성을 갖는 공간적 범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시는 그 규모가 아니라 특성과 기능 면에서 지역 스케일과는 몇 가지 지점에서 차별화된다. 예컨대 사센(Sassen, 1991), 프리드먼(Friedmann, 1986)은 런던, 뉴욕, 도쿄와 같은 세계도시가 국경을 넘어 상호간에 연결되어 세계경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물론 이들 소수의 도시들만을 세계도시로 한정지어 볼 수는 없다. 오늘날 제1/제3세계의 구분을 가로질러 세계 각국의 여러 도시들이 ‘세계도시 네트워크(world-city network)’를 형성하여 자본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Beaverstock *et al.*, 2000). 하비(Harvey, 2003)는 이처럼 지역에 대비되어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노드(node)로서의 연결성이 강조되는 도시의 독특한 공간성을 감안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방안으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로부터 비롯된 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개념을 제시한다. 도시에 대한 권리는 특정 도시에서 생산되는 잉여의 생산과 활용은 그 도시 밖의 지구적 자본주의의 순환(예컨대, 초국적 기업의 이윤)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우선적인 접근권이 있으며, 나아가 도시를 변화시킬 권리도 도시민에게 있음을 강조한다(강현수·황진태 엮음, 2012).

국내 여성운동 연구도 오늘날 자본축적의 장(場)인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권리향상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도시의 공간적 특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찍이, 윤희린(2007a)은 사센의 논의를 차용하면서 자본축적의 컨트롤 타워인 세계도시에서 어떻게 ‘공간적 정의(spatial justice)’를 실현하느냐에 따라서 여성권리의 향상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도시에 주목하지는 시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여성주의 관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는 이현재(2008b; 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현재는 도시공간에서 매춘이 어떻게 타자화되고 배제되어 왔었는지를 밝히면서, 그러한 배제의 핵심에는 이성중심적인 시민권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민권의 대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통하여 매춘인도 도시공간을 점유할 수 있으며, 최근의 집창촌 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서도 매춘인의 노동공간을 지킬 이론적 근거를 제안했다(이현재, 2008b).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매춘인과 같은 특정 여성 직업군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현재(2010)는 ‘여성’의 차이가 아닌 매춘인을 포함한 여성‘들’의 차이의 공간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유용함을 역설하고, 나아가 여성들 간의 차이를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연대의 공간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여성운동의 초점을 글로벌 스케일에 주목하려는 입장이 존재한다. 먼저, 국가들 간 협력, 국제법 및 제도, 국제기구 등의 활용을 통한 글로벌 스케일에서 여성의 권익 향상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있다. 안숙영(2012)은 기존의 ‘복지공간’이 국민국가라는 영토 안에서 남성 중심으로 존재하였다면, 최근의 지구화로 인한 이주의 확산으로 생성된 탈국민국가적 상황에서는 복지의 공간적 단위를 일국가로부터 탈남성화된 ‘초국가적 복지공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임운택(2005; 2006)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로 인하여 군사안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기존의 안보는 국가에 의하여 하향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새롭게 등장한 국가 내부의 갈등(이주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향적인 안보개념으로서 ‘인간안보’

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지적한다. 특히, 여성차별, 매매춘, 노동력 착취로 인한 ‘여성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을 역설한다.

이들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초국적 페미니즘은 세계화에 직면한 여성들이 글로벌 스케일을 전유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화의 과정이 초국적 자본을 위시한 전지구적 수준의 착취를 강화하는 억압적·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여성들에게 기존의 국가 및 지역 경계 내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운동을 전개할 역량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한다(이냐영, 2006; 이소희, 2009). 이들 연구는 여성들이 국경 넘기를 통하여 초국적 기업만큼이나 글로벌 스케일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위치한 여성들이 글로벌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초국적 기업에 비하여 필연적으로 수세적이고, 약할 것이라는 인식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글로벌 스케일에 관심을 둔 국내 여성운동 연구는 여성운동의 전망과 방향에 대한 시론적 논의가 주를 이루어왔다. 국내 여성운동에서는 글로벌 수준에서 쟁점이 된 이슈가 많지 않았던 탓에 이론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화와 초국가적 현상의 심화에 따라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경험연구는 점차 더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이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의 양적 증가로 이주여성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이 국내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초국가주의와 여성주의를 결합한 이주연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한진수, 2006; 김혜순, 2008; 황정미, 2011). 즉, ‘국내’ 여성운동의 범주가 점차 모호해지고 글로벌 스케일과 연루된 새로운 형태의 여성운동이 발생할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정리하면, 초창기 여성운동 연구가 국가 스케일에 주로 초점을 두고 다른 지리적 스케일을 간과했던 것에 반해 최근의 연구들은 점차 국가 스케일 이외의 지역, 도시, 글로벌 스케일로 그 범위와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상이한 공간적 스케일의 존재를 인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식론적 진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들이 ‘지역-국

가-지구를 잇는 다층적 정치적 공간들의 사회적 관계와 힘들을 고려'(허성우, 2006, 190)하고, '국제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연관관계'(임운택, 2006, 101)를 밝히며, '일상의 여성주의적 미시정치학과 전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와 연결된 고리들을 간파해 낼 수 있는 능력'(이소희, 2009, 222)이 필요하다고 선언적으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스케일이라는 공간적 개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개별 스케일을 수직적 위계구조 속에서 고정되고 선형적으로 주어진 분석단위로 상정함에 따라 상이한 스케일을 가로지르면서 존재하는 여성운동의 공간성을 포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여성주의의 사적/공적 공간의 분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여성운동에서 미시적 스케일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스케일 논의를 주도한 닐 스미스는 일찍이 사회과학에서 무분별하게 공간적 메타포를 사용하면서 '이미 알려진' 것으로 인식된 공간적 메타포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할 여지가 봉쇄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Smith, 1993, 98-99). 나아가 정현주(2012, 106-109)는 여성주의 연구에서 공간은 '메타포인 동시에 실제 물질관계를 수반하며,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개념인 동시에 연구대상이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스케일을 학술적 개념인 동시에 여성운동의 실천적 도구로서 이해할 수 있을지를 마스틴과 브레너의 스케일 논쟁을 통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여성운동 연구에서 스케일 논의의 인식론적 탐색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생산의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사회운동연구는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Herod, 2001). 생산의 영역에 기

반한 저항만으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어렵고, 비정규직화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산의 영역에서의 연대마저 균열이 가면서(Nagar et al., 2002; Chang, 2009),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에 기반한 새로운 연대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Katz, 2001). 케츠(2001)가 주장한 것처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재생산은 모두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운동이 조직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역설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의 편재성(ubiquity) 때문에 오히려 연대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Katz, 2001, 718). 따라서 사회운동에서 방법론적·인식론적으로 재생산의 영역(가령, 가정과 몸)을 포착하고 기존의 생산의 영역과 연결 짓는 것은 전략상 중요한 문제이다(Nagar et al., 2002, 266-268).

1990년대 활발히 진행되어온 서구 지리학계의 스케일 연구는 2000년 *Progress in Human Geography*에 실린 마스틴의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비판적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녀는 기존의 스케일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와 이 생산관계가 스케일의 사회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화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사회적 재생산과 소비의 영역 등 자본주의 생산에서 비껴나 있는 다른 권력관계가 스케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표 1 참조). 대신 그녀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스케일 일인 '가정'에 주목한다. 자본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상품화된 유급노동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미시 스케일인 가정에서의 노동력 재생산 역시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가정 내의 사회적 관계가 온전히 자본주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직간접적으로 자본주의는 가부장제와 뒤섞여 있다(Marston, 2000, 233). 즉, 국가와 자본만이 자본주의 작동의 스케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인종, 계급 등이 복합적으로 체현된(embodied) 사회적 행위자들이 만들어 내는 '가정'도 자본주의 작동의 미시스케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Marston and Smith, 2001, 617).

마스틴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미국 도시의 중산층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회적 재생산과 긴밀히 관련된 어머니와 주부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연대하여 여성 스스로 출산을 통제하고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법안(Aid to Dependent Children)을 법제화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례는 여성이 공적/사적 공간을 가로질러 출산이라는 ‘사적’인 이슈로 ‘공적’인 정책의제에 참여한 정치를 잘 보여준다. 이 법안은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싼 젠더관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한편, 가부장적 규범에서 벗어난 미혼모/편부모 현상을 여성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대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신호탄이 되었다. 즉 ‘가정’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출산과 양육투쟁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젠더관계와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Marston, 2000, 235). 이는 ‘가정’이 자본주의나 가부장제와 같은 사회구조적 힘에 의해 분리된, 별개의 공간이자 스케일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작동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공간단위라는 인식을 불러일으켰다(Marston, 2000, 235; 2004, 185).

브레너(Brenner, 2001, 596-598)는 기존 스케일 연구가 재생산의 영역을 간과했다는 마스틴의 비판에 동의한다. 그러나 마스틴이 ‘가정’이라는 단일한(singular) 스케일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다중스케일적 특성, 즉 관계적인 측면에서 복수의(plural)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서는 살피지 못하였음을 한계로 지적한다. 본 저자들 역시 단순히 가정을 스케일로서 개념화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여성운동 연구의 이론적

결함을 보완하기 어렵다고 보며 브레너가 주창한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의 필요성을 수용하고자 한다.

다중스케일적 인식론 속에서 가정 스케일을 위치시킬 필요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정과 같은 특정 스케일을 다른 스케일에 비해 선행적으로 우선시할 경우 자칫 공간물신론(spatial fetishism)에 빠질 위험이 있다. 특정 스케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이한 스케일 상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관계 및 세력들 간의 사회·문화·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정현주, 2008; 황진태, 2011b, 52-53). ‘가정’을 다중스케일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가정’이라는 스케일을 다른 스케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함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을 다중스케일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스케일의 관계적 위치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전략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지역 a에 있는 가정 스케일은 국가 스케일과, 지역 b의 가정 스케일은 국제구호기구 등의 글로벌 행위자와 각각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두 지역의 가정 스케일에서 시도할 수 있는 공간적 전략은 중앙 정부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둘 수도, 혹은 국제적인 연대에 집중해야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기존 여성운동 연구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예컨대 초국적 기업)에 비하여 로컬 스케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를 이동성이 낮고, 취약하고, 수동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을 답습하고 있다. 가정이 로컬의 단순 하위 범주로서 로컬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이고, 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경우 창발적인 공간적 실천들이 제한될 가능성(Silvey, 2004; 정

표 1. 스케일 연구에서 정치경제적 접근과 여성주의적 접근의 비교*

정치경제적 접근	학문적 입장	여성주의적 접근
도시, 국가, 글로벌	주요한 분석의 스케일	가정, 몸
자본주의	주목하는 체제	자본주의+가부장제
낮음	재생산, 소비에 대한 관심	높음
이분법적 분리	사적/공적 공간 간의 관계	해체 내지는 혼종
생산영역의 정치를 둘러싼 국가, 자본	스케일 형성의 주요 행위자	젠더, 인종, 계급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행위자들

* Marston(2000)과 Marston and Smith(2001)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구성

현주, 2008, 905-906)이 생겨나게 된다.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은 이분법적 스케일 인식에 대한 비판적 논의(Gibson-Graham, 2002; Hwang, 2014, 82)와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스케일 인식이 지닌 반동적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편, 브레너의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닐 스미스와 함께 쓴 반론에서 마스틴은 이미 자신의 논문에서 가정 스케일을 '다중스케일적 착근성'의 측면에서 바라봤으며, 브레너가 임의적으로 가정을 장소나 무대와 같은 것으로 격하시키고, 국가는 다면적인 스케일로 구분하였다고 비판한다. 또한, 브레너가 가정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경구조(relatively stable background structures)'(Brenner, 2001, 598)로 기술한 것에 대하여 국가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경구조'³⁾로 인식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스케일로서 가정을 개념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Marston and Smith, 2001, 618).

이상의 마스틴과 브레너 간의 스케일 논쟁은 퍼셀(Purcell, 2003)의 평가처럼 화해가 불가능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을 갖는다. 브레너의 지적처럼 마스틴은 자신의 논문에서 가정을 스케일로 논의하면서 사이트(site)와 같은 다른 지리적 용어들과 혼용하고, 단일한 스케일로서 가정을 간주하면서 가정이 어떻게 다른 스케일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지, 스케일 간 관계가 재편이 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하지만 마스틴의 비판처럼 브레너를 포함한 정치경제학에 기반한 연구자들이 자본주의의 생산 연구에서 자본주의 이외에 다른 형태들을 밝히지 못하였고,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생산과 국가에만 초점을 두면서 마치 생산과 국가의 영역이 일방적으로 재생산과 소비 또는 가부장제를 결정짓는 것을 긍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대안적으로 퍼셀은 이들 논쟁은 이론적인 문제이기 보다는 방법론적인 문제라면서 다양한 학문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 간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Purcell, 2003, 328-329). 퍼셀의 이러한 제안은 다소 규범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긴 하나 타당성을 지닌다. 마스틴의 주장처럼 기존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의 스케일 연구가 간과해온 스케일로서 가정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고, 브레너의 다중스케일적 인식을 수용하여 가정을 상이한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 내에서 이해할 경우 여성운동에서 스케일 정치의 역할과 전략적 효과를 보다 탁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토대해 국내 여성운동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여지가 있는 국외 경험연구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자.

매슨(Masson)은 1990년대 분권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된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 여성운동진영이 여성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캐나다 국가의 분권화 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을 스케일의 정치의 측면에서 분석했다(Masson, 2006). 1970-80년대의 개입주의 복지국가 모델에서 벗어난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려는 것을 포함하는 경제 재구조화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기존의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들을 지역(region)⁴⁾으로 대폭 이전하는 일련의 분권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는 세계화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역 스스로가 자구적으로 개발을 추구하도록 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권화 흐름은 지방정부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이 약해지는 제로섬(zerosum) 관계이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스케일로서 재정의하려는 국가 공간전략의 재편(rescaling)으로 볼 수 있다(Masson, 2006, 470).

한편, 90년대 이전까지 퀘벡 주의 여성운동은 지역수준의 활동은 미약하였고 존재하던 여성운동 관련 기구들도 지역발전정책과 무관했다. 하지만 90년대 본격화된 경제 재구조화의 여파로 여성의 고용, 교육, 빈곤 등이 악화되면서, 로컬과 지역에서의 여성운동기구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 재구조화를 위하여 생산한 지역 스케일에 대항하기 보다는 지역 스케일에 적극적으로 포섭되는 전략을 선택한다. 즉, 이들은 지역을 여성주의 정치를 위한 스케일로서 구성한 것이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성운동기구의 구성원들은 지역발전을 논하는 협의체에 들어가고자 했다. 이를 통하여 여성의제를 지역발전 정책과 결합하고

자 했다. 대표적으로 5개년 지역발전 전략계획과 같은 장기적인 구상에도 참여하게 된다. 답론적으로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이익(women’s interest in regional development)’, ‘지역여성(the women of the region)’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스케일과 여성운동의 관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Masson, 2006, 472-474). 매순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운동기구들의 선택과 행위는 단순히 지역발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자에게 여성의제를 부각시키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적절하고 정당한 스케일로서 ‘지역’을 구성한 스케일의 정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Masson, 2006, 474).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회세력의 이해관계를 관찰시키기 위하여 생산된 특정한 스케일(매순의 사례에서는 지역)은 영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 스케일을 둘러싼 사회세력들 간의 긴장관계에 따라서 다른 스케일과의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그 양태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Brenner, 2001). 앞서 강조했듯이 여성운동 진영의 지역 스케일 만들기는 국가의 분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통한 국가정책에 여성의제를 반영시키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지만, 동시에 각 지역마다의 여성운동의 인력, 고유의 지역의제, 지리적 특수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로컬 스케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긴장은 정당하고 효과적인 여성운동 스케일로서 ‘지역’의 위상을 위협하는 변수가 되었다. 비록 이러한 균열의 징후들이 이미 상당히 공고하게 자리 잡은 지역 스케일의 위상을 흔드는 데는 실패했지만(Masson, 2006, 478), 특정 스케일을 다른 스케일 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

4.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스케일 논의의 시사점

2장에서 검토한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나타난 스케일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재차 요약하자면, 기존 연

구가 국가, 도시, 지역 중의 특정 스케일에만 주목하면서 상이한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스케일로서 감정이나 몸에 대한 이론화와 이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공적/사적, 거시/미시 스케일의 이분법을 교란할 수 있는 여성운동의 가능성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안적 함의를 찾고자 3장에서는 국내보다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국외의 스케일 논의를 통하여 감정이나 몸과 같은 미시스케일이 국가나 글로벌 등의 거시스케일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상호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퀘백 주 여성운동에서 나타난 성공적인 스케일의 정치 사례를 통해서 스케일이 여성운동을 재구성하고 이해하는 데에 유용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내 여성운동에서 스케일 논의가 어떤 의미를 가질 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발전주의의 경험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었으며 이에 여성운동의 전략적 스케일로서도 국가 스케일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허성우, 2011).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여성운동의 다양한 공간적 실천들과 전략들을 국가 스케일로만 수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함정을 경계하기 위해 국가를 의심할 것 없이 주어진 분석단위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가가 특정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에 이르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근에 여성주의 연구자들 중에서 국가론에 주목한 허성우(2011)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 허성우(2011)는 발전국가에서부터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체계모니(가령 발전주의 시대의 출산억제정책과 포스트 발전주의 시대의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여성 몸의 통제)에 대한 고려의 부족으로 포스트 발전국가는 의가 젠더-섹슈얼리티의 권력관계를 누락하거나 단순화시켰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녀는 국가를 “하나의 단일한 권력의 보편적 실체로 가정”하는 것이 “여성들의 국가에 대한 협상과 저항을 볼 수 있는 여지”를 봉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허성우, 2011, 145). 이처럼 국가를 일괴암(一塊巖)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

각에는 동의하지만, 그녀의 논의 안에서 어떻게 협상과 저항의 '여지'들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설명과 분석들은 부족해 보인다. 이는 자칫 2장에서 살펴본 국가스케일에만 천착한 국가페미니즘(김경희, 2009)으로 회귀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지리학계 일각에서는 국가를 공간적으로 바라보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박배균, 2012). 즉, 국가를 베버주의식의 계획합리성을 갖고 있는 국가관료들의 집합 또는 마르크스주의식의 부르주아 집행위원회와 같은 단일한 이해관계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적 전략의 각축장'(Jessop, 1990)으로 간주하고,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를 통하여 다양한 스케일 상에 위치한 사회세력들의 갈등과 경합에 따라서 국가정책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황진태·박배균, 2014).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도 국가를 스케일 개념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읽어냄으로써 허성우(2011)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다중스케일적 측면(Brenner, 2001)에서 개별적으로 다뤄졌던 '지역', '도시', '글로벌' 등의 다양한 스케일들이 어떻게 국가스케일과 연관되는지를 규명해야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최근의 국내 사례를 통해 이를 간략히 논해보자.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한미 FTA 협상 중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안에 불만을 제기하고자 시민들은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황진태, 2011a). 당시 이명박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논의의 초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정치경제적인 사안이었지만, 그 협정의 일환으로 추진될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의 수입은 주부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염려, 즉 사적영역에서의 재생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김영옥, 2009). 이러한 염려는 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통하여 급속히 확산, 공유되었고 급기야 자녀를 태운 유모차를 서울 도심의 시위공간에 끌고 나오게 되면서 소위 '유모차 부대'를 형성하였다. 이 유모차라는 문화적 아이콘은 촛불집회를 모성에 근거한 비폭력적 시위로 언론과 대중에게 각인시키면서 국가의 강경진압에 대비되는 상징물 역할을 하게 되었다(임형도, 2008). 전통적으로 육아와 살림은 주부가 가정이라는 스케일에서 수행하

는 대표적인 '여성적' 역할이었다(Marston, 2001). 광우병 소고기 수입의 우려가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정치적 장에 등장한 유모차는 매우 생경한 장면을 만들어내지만 시위의 현장에 참여한 '주부'라는 여성적 주체를 통해 둘 간의 어색한 공존은 자연스럽게 매개된다. 이러한 어색한 공존은 한미 FTA와 같은 정치외교적 전쟁이 '건강한 먹거리'라는 가정적 요구와 분리될 수 없음을 시각적으로 웅변한다. 이는 가정에서 요리하는 주부가 국민의 먹거리를 걱정하는 정당한 주체로서 설득력을 확보하면서 '먹거리'는 가정의 이슈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스케일 뛰어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모차'는 '주부'라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그녀들의 시공간적 제약을 동시에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 가정과 시위의 현장을 매개하면서 사적 공간이 공적 공간으로 확장되는, 또는 공적 공간 안에 사적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즉 안이면서도 바깥이 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 낸다.⁶⁾ 이러한 유모차 부대의 활약은 결국 정부의 FTA 협상조건을 변경하도록 만들었으므로, 국가정책의 변화를 유도해 냈다.⁷⁾

거듭 강조했듯이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특정 스케일이 다른 스케일에 비하여 선형적으로 우세한 것은 아니다. 이는 유모차부대 사례에서도 국가스케일이 일방적으로 지역이나 가정 스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자본 혹은 국가의 이해관계만이 국가스케일의 작동에 관여한다고 선형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스케일에 대한 너무 단순한 이해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스케일이 가정, 도시, 지역 스케일보다(특히 생산의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도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오류일 수 있다. 다중스케일적 인식론은 국가스케일도 여러 지리적 스케일 중 하나의 스케일로 배치할 뿐만 아니라 각 스케일은 여러 스케일에서의 작용들이 상호 경합하고 복합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구성되는 가변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5. 결론: 간학문적 스케일 연구를 향하여

본고에서 필자들은 국내 여성운동 연구와 스케일 논의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기존 여성운동 연구는 각각의 스케일이 선형적으로 주어지며 수직적으로 위계지어진다고 전제하면서 스케일 간의 관계보다는 개별 지리적 스케일 내에서 이루어지는 실천들에 한정된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다중스케일적 인식에 따르면, 스케일은 상이한 스케일에 위치한 사회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정치활동의 산물로서 역동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공간성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공간적 성찰은 나아가 여성운동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밑거름을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본 논문은 스케일의 정치에서 간과되었던 가정 스케일을 강조하는 마스틴의 주장이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 있어서 앞으로 가정 스케일이 어떻게 상이한 스케일들(국가, 지역, 글로벌 등)과 연관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정과 같은 미시적 스케일은 사적 공간으로, 국가와 같은 거시적 스케일은 공적 공간으로 대응시키는 스케일 간 수직적 위계관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을 통해서 여성주의자들이 그토록 주창해 온 공적/사적 공간의 분리 역시 교란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스케일에 대한 위계적 인식으로 인해 스스로 깨고자 했던 이분법적 인식을 재생산해 온 여성운동 연구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동안 여성주의 연구는 남성중심적 학문세계가 간과해 온 ‘가정’이라는 영역을 중요한 정치적 장으로, 생산과 밀접히 연관된 공간으로 이론화하고자 시도해왔다. 그러나 ‘가정은 중요하다’라는 여성주의자들의 구호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이 어떻게 다른 여러 공간들과 더불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케일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이에 대한 하나의 이론적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가정’을 단순히 추상적 장이나 특수한(고정되고 예외적이며 다른 공간과 분리된) 장소로만 보는 것을 넘어 다양한 힘들이 교차하고 작동하는 스케일로 볼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을 (국가도 마찬가지로) 다중스케일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가정을 하나의 단일하고 고정되고 주어진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공간들과 관계적으로 작동하는 열린 구심점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여기서 스케일은 그러한 공간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련의 (가변적인) 체제 내지는 위상학이다. 사회운동에서 이러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스케일 내지는 공간(가령 가정)이 지니는 위치를 상황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그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여성운동 연구에서 스케일 논의는 어떤 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실천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해 본 연구자들은 세 가지 방향에서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 스케일에 관심을 둔 연구자들 간의 공동연구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다중스케일적 접근은 이론이기 보다는 방법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검토했던 논자들이 개별 스케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연구자들 간에 다중스케일적 인식이 공유되는 조건에서 특정 사례에 대하여 주요한 스케일을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각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 주목하는 공동연구를 통하여 다중스케일적 분석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이한 공간개념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 간의 공동연구다. 여성운동의 공간성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스케일 논의는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 글로벌에서 가정에 이르는 스케일을 깔때기형 수직적 위계에 고착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수준의 공간들 사이에 힘의 비대칭과 스케일적 배열 자체는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대안적 정치공간 및 사회공간적 저항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적 공간인식이 요구 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관점이 모든 사회현상을 스케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새로운 스케일이나 활동이 구성되거나, 다른 스케일의 공간들

간의 연결을 설명하는 데에는 네트워크 개념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여러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스케일을 영역, 네트워크, 장소 등의 상이한 공간적 개념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Jessop *et al.*, 2008; Leitner *et al.*, 2008; 박배균, 2012).

셋째, 여성학자와 지리학자간의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상호수용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다.⁸⁾ 많은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공간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공간개념에 친착한 연구들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⁹⁾ 여성학 연구에서 공간은 거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세계화와 포스트구조주의의 등장이라는 물질, 지성사적 전환이 공간에 대한 인문사회과학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유도한 사실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여성학의 공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성주의와 공간의 접합은 자신만의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정현주 옮김, 2011, 322-323). 여성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¹⁰⁾ 여성억압의 근원과 도구가 무엇인지, 여성성(남성성)은 어떻게 물질/담론적으로 구성되는지, 어떻게 대안적 세계로 나아가지 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공간적 사유는 매우 유용하다. 젠더와 공간의 접점은 주로 여성주의 지리학에서 탐색해 왔으며 그 결실은 여성학과 지리학 모두에게 생산적인 영향을 미쳐왔다.¹¹⁾

지리학의 오랜 공간연구 전통은 여성주의 연구에서 공간에 대한 사유를 확장하는데 이론적, 방법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일부 여성주의 연구를 제외하고(가령, 이현재, 2008a; 2008b) 여성학 연구에서의 공간은 담론적 차원에 머물러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여성주의 지리학은 담론적 차원뿐만 아니라 물질적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여성성(남성성)을 규정하는지, 그러한 물질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젠더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연구를 축적해왔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본문에서 다룬 다중스케일적 관점 역시 스케일이라는 공간개념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적 관계 및 체제를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스케일이 여성운동을 해석하는 담론적 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운동의 실제적인 전략이 된다는 점, 다시 말해 젠더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도구가 됨을 내포하고 있다. 스케일이 중첩되고 가로지르고 위계관계를 벗어나 작동함을 의미하는 다중스케일이라는 관점은 여성/남성의 이분법에 입각하여 여성에게 억압적인 공간을 구현해 온 근대적 공간관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될 수 있다. 안이 밖이 되고,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흐려지며, 주변에서 중심의 전복을 상상하며, 하나의 평면에서 반듯하게 구획되는 것이 아닌 주름잡히고 역설적인 정체성들간의 협상을 통해 주체가 구성됨을 주장하는 여성주의 공간관은 다중스케일적 관점과도 상통한다는 점에서 다중스케일적 관점은 여성운동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개념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지리학의 다양한 방법론은 여성주의 연구에 접목되기에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기존 여성주의 공간연구는 실제 도시공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나 도시 전체에 걸친 거시적 분석을 대체로 결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이건학 등, 2013, 58-59). 특정 공간의 배열, 인구학적 특성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사회운동의 역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시각화·지도화하는데 탁월한 실증적 공간연구 방법론(가령 GIS)은 여성주의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도 큰 효용성이 있다(Kim, 2005; Kim, 2007 참조). 그 외 지리학과 공간연구에서 오랜 방법론적 도구로 발전해 온 심상지도(mental map)를 이용하여 국내 이주여성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이를 통한 정체성의 협상을 탐색한 연구나(Jung, 2014) 성별에 따른 공간 인지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신정엽, 2009) 등 지리학의 다양한 개념적 도구와 방법론이 여성주의 사회운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성학은 주류지리학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주제(특히 젠더관점에 입각한 주제들과 미시공간 및 미시스케일에 대한 주제)를 발굴하고 심화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과 관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리학적 개념과 연구방법 자체가 남성중심적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함으로써 지리학의 남성중심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제시한다.¹²⁾ 사회운동의 공간성

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역시 마치 공간 또는 스케일이 젠더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것인 양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특정 공간/스케일과 특정 젠더를 문제의 식 없이 등치시키고 일반화하는(가령 여성운동은 항상 미시적이고 지역적인 것인 양)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젠더에 무지하거나(gender blind) 편견에 사로잡힌 인식은(윤리적인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리학 연구의 지평 확장과 간학문적인 교류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한 다중스케일적 접근을 수용한 여성주의 공간연구는 이러한 간학문적 교류를 통해 공간정치의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

- 1) 사회운동으로부터 여성운동을 구분짓는 것은 여성이 여러 사회문제 중 하나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갑희(2007, 11)가 지적했듯이 여성운동이 바로 사회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념을 구분짓는 이유는 첫째, 여성운동이 독자성을 띠면서 다른 사회운동과 다른 내용들을 갖고 운동해왔고, 둘째, 기존 사회운동이 남성중심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 스케일 연구가 남성중심적, 생산의 영역에 초점이 쏠려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재생산의 영역이 기존 남성중심, 생산 중심의 정치경제학과 관련이 되며, 나아가 보다 풍부한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론과 운동의 핵심에 여성주의”(고정갑희, 2007, 11)를 두어야 함을 지향한다.
- 2) 이러한 공간 맹점은 비단 여성운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 사회운동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다(정현주, 2006; 황진태, 2011a).
- 3) 마스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경구조”라는 용어에 대해서 불편함을 드러낸 이유는 상이한 스케일 간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을 스케일로서 인식하려는 자신의 제안에 대하여 브레너가 가정은 그러한 역동성과는 거리가 먼 장소 개념에 가깝다는 생각을 그 용어에 내포했기 때문이다.
- 4) 여기서 지역(region)은 퀘백 주를 구성하는 17개의 하위 행정단위를 일컫는다. 편의상 로컬(local) 스케일은 개별 지역보다 하위의 스케일임을 밝힌다.
- 5) 국내 여성주의 연구에서 국가론에 대한 고민은 90년대 초

- 창기부터 존재했었다(이승희, 1993; 남윤주, 1994). 하지만 당시 연구들은 서구 여성주의 연구에서의 다양한 국가론을 소개하는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구체적인 맥락에서의 연구로 전진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일렀다.
- 6) 이러한 유모차는 서론에서 소개한 닐 스미스가 스케일 뛰어넘기의 사례로 든 노숙차와 개념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 앞서 해외 여성운동에서의 스케일 연구로 매슨(Masson)을 소개했지만, 매슨의 연구는 지역 스케일의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정 스케일의 기능과 역할은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사실 해외학계에서도 가정을 스케일로서 보자는 마스틴(Marston)의 제안 이후에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Devasahayam et al, 2004)와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Mahon, 2006) 등의 학술지에서 특집호를 기획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나왔지만, 스케일로서 가정이 어떻게 다른 스케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여전히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유모차 부대 사례는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 8) 스케일 연구에 있어서 간학문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황진태·박배균(2013, 361)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 9) 예컨대 ‘아시아 여성주의 공간’(윤혜린, 2007b), ‘경계 넘기’(문재원, 2010), ‘네트워크’(김혜린, 2010), ‘장소’(김영옥, 2010; 2012), ‘가임 공간’(이현재, 2012) 등의 공간개념들에 주목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 10) 에이드리언 리치(Adrienne Rich)는 여러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지점들이 여성주체의 위치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위치의 정치’(politics of location)라고 표현했다(정현주 옮김, 2011, 316).
 - 11) 여성주의 지리학에 대한 간략한 개론적인 설명은 정현주(2013)를 참고할 것.
 - 12) 지리학의 남성중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해부한 연구로는 정현주 옮김(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인순, 2004, “산업화, 개발국가와 여성(1960-1970년대),” 정진성·안진 외 엮음,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69-94.
- 강현수·황진태 엮음, 2012, 도시와 권리, 라움.
- 고정갑희, 2007, “여성주의 이론생산과 여성운동,” 여/성

- 이론, 17, 10-31.
- 김경희, 2009, “신자유주의와 국가페미니즘,” 진보평론, 40, 14-32.
- 김기선미, 2004, “‘진보적 여성운동’의 전망,” 정진성·안진 외 엮음, 한국현대여성사, 한울아카데미, 346-370.
- 김영옥, 2009,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촛불집회와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 아시아여성연구, 48(2), 7-34.
- 김영옥, 2010, “안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아이디’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4, 31-64.
- 김영옥, 2012, “장소 만들기의 정치학과 스토리텔링,” 젠더와 문화, 5(1), 145-183.
- 김혜련, 2010, “네트워크 에이전트의 행위성에 대한 젠더 분석적 고찰,” 한국여성철학, 13, 53-79.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42(2), 36-71.
- 남윤주, 1994, “여성과 국가이론,” 여성과 사회, 5, 164-183.
- 문재원, 2010, “경계넘기의 서사적 재현-국경을 가로지르는 여성의 서사: 바리데기, 리나, 짚레꽃,” 현대문학이론연구, 41, 231-255.
- 박기남, 2012, “개인화 시대의 여성운동 방향 탐색,” 페미니즘 연구, 12(1), 73-116.
- 박배균, 2012, “한국학 연구에서 사회-공간론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한 소고,” 대한지리학회지, 47(1), 37-59.
- 신상숙, 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젠더-거버넌스: 국가 기구의 제도적 선택성과 여성운동,” 페미니즘 연구, 11(2), 153-197.
- 신정엽, 2009, “공간 인지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25-143.
- 안숙영, 2012, “젠더의 렌즈로 본 복지공간: 이론적 현황과 전망,” 한국여성학, 28(1), 113-146.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편집부, 2008, “기획특집: 집창촌의 공간정치학과 젠더/섹슈얼리티 재배치,” 여/성 이론, 18, 4-98.
- 윤혜린, 2007a, “공간 철학에서 본 아시아의 글로벌 시티, 개발 그리고 여성에 관한 시론,” 한국여성학, 23(4), 119-149.
- 윤혜린, 2007b, “지구지역시대 아시아 여성주의 공간의 모색,” 한국여성철학, 8, 115-139.
- 이건학·신정엽·홍유진, 2013, “젠더화된 도시 공간 탐색: 도시 건물의 용도별 공간 분포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3(3), 57-73.
- 이나영, 2006, “초/국적 페미니즘,” 경제와 사회, 70, 63-88.
- 이소희, 2009, “트랜스내셔널 장에서의 페미니스트 주체형성과 연대의 정치학,” 영미문학페미니즘, 17(1), 209-236.
- 이승희, 1993, “국가, 자본주의, 여성문제-가부장제 국가론 비판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 283-308.
- 이현재, 2008a, “성적 타자(sexual other)가 인정되는 도시 공간을 위한 시론: 매춘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10, 1-26.
- 이현재, 2008b, “매춘의 도시지리학과 공간생산을 위한 투쟁,” 사회이론, 33, 111-133.
- 이현재, 2010, “여성주의적 도시권을 위한 시론 차이의 권리에서 연대의 권리로,” 공간과 사회, 34, 5-32.
- 이현재, 2012, “여성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젠더와 문화, 5(1), 41-69.
-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 경남대학교 출판부.
- 임운택, 2005,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여성정치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젠더와 사회, 4, 101-120.
- 임운택, 2006, “글로벌 젠더정치: INGO와 글로벌 거버넌스,” 젠더와 사회, 5, 121-144.
- 임형도, 2008, “촛불집회 이끄는 힘, 여성전사들,” 주간경향, 784, <http://newsmaker.khan.co.kr/khnm.htm?mode=view&code=115&artid=18006&pt=nv>
- 장수정, 2012a,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 돌봄 공동체 사례 연구,” 한국여성학, 28(2), 1-31.
- 장수정, 2012b, “과천지역 공동체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2(2), 31-68.
- 정현주, 2006, “사회운동의 공간성: 사회운동연구에 있어서 지리학적 기여에 대한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41(4), 470-490.
- 정현주, 2008,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43(6), 894-913.
- 정현주,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5(1), 105-144.
- 정현주, 2013, “페미니스트 지리학과 젠더,”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 227-261.
- 정현주 옮김,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Gillian Rose,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Polity Press, Cambridge).
- 조은, 1990, "공간·계급·여성," *사회비평*, 4, 154-174.
- 조주현, 1996, "여성 정체성의 정치학: 80-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2(1), 138-179.
- 한건수, 2006, "농촌 지역 결혼 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19.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황진태, 2011a, "2008년 촛불집회시위의 공간성에 관한 고찰," *경제와 사회*, 90, 262-289.
- 황진태, 2011b, "도시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광장의 정치," *공간과 사회*, 35, 42-70.
- 황진태 · 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
- 황진태 · 박배균, 2014, "구미공단 형성의 다중스케일적 과정에 대한 연구: 1969-73년 구미공단 제1단지 조성과정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1), 1-27.
- 허성우, 2006, "지구화와 지역 여성운동 정치학의 재구성," *한국여성학*, 22(3), 169-198.
- 허성우, 2011, "포스트발전국가론과 여성주의적 개입," *한국여성학*, 27(1), 117-154.
- Beaverstock, J., Smith, R. and Taylor, P., 2000, World-city network: a new meta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0(1), 123-134.
- Brenner, N., 2001, The limits to scale? methodological reflections on scalar structura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4), 591-614.
- Brenner, N., 2004, *New State Space: Urban Governance and the Rescaling of Statehood*,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and New York.
- Chang, D. O., 2009, Informalising labour in Asia's global factor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39(2), 161-179.
- Delaney, D. and Leitner, H., 1997,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scale, *Political Geography*, 16(2), 93-97.
- Devasahayam, T. W., Huang, S. and Yeoh, B. S. A., 2004, Southeast Asian migrant women: Navigating borders, negotiating scales,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 135-140.
- Friedmann, J., 1986,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7, 69-83.
- Gibson-Graham, J-K., 2002, *Beyond global vs. local*, in A. Herod. and M. Wright. Eds. *Geographies of Power: Placing Scale*, Blackwell Publishers, Malden, MA, 25-60.
- Harvey, D., 2003, The right to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7(4), 939-941.
- Herod, A., 2001, *Labor Geographies: Workers and the Landscapes of Capitalism*, Guilford Press, New York.
- Howitt, R., 2003, Scale in J. Agnew, K. Mitchell and G. Toal. Eds. *A Companion to Political Geography*, Blackwell Publishing Ltd, Malden, MA, 132-157.
- Hwang, J. T., 2014, Territorialized urban mega-projects beyond global convergence: the case of Dongdaemun Design Plaza & Park Project, Seoul, *Cities*, 40, 82-89.
- Jessop, B., 1990, *State Theory: Putting the Capitalist State in its Place*, Polity Press, Cambridge.
- Jessop, B., Brenner, N. and Jones, M., 2008, Theorizing so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6(3), 389-401.
- Jung, H., 2014, Let their voices be seen: exploring mental mapping as a feminist visual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migrant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8(3), 985-1002.
- Katz, C., 2001, Vagabond capitalism and the necessity of social reproduction, *Antipode*, 33(4), 709-728.
- Kim, H. M., 2005, A GIS-based analysis of spatial patterns of individual accessibility: a critical examination of spatial accessibility measur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0(5), 514-532.
- Kim, H. M., 2007, Gender roles, accessibility, and gendered spatiality,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2(5), 808-834.
- Leitner, H., Sheppard, E. and Sziarto, K. M., 2008, The spatialities of contentious politi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3(2), 157-172.

- MacKinnon, D., 2011, Reconstructing scale: towards a new scalar politic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5(1), 21-36.
- Mahon, R., 2006, Introduction: Gender and the politics of scale,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13(4), 457-461.
- Marston, S. A.,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al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4(2), 219-242.
- Marston, S., 2004, A long way from home: domesticating the social production of scale, in E. Sheppard and R. McMaster. Eds.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Nature, Society and Method*, Blackwell Pub., Malden, MA, 170-191.
- Marston, S. A. and Smith, N., 2001, States, scales and households: limits to scale thinking? a response to Brenner,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4), 615-619.
- Masson, D., 2006, Constructing scale/contesting scale: women's movement and rescaling politics in Quebec, *Social Politics*, 13(4), 462-486.
- Nagar, R., Lawson, V., McDowell, L. and Hanson, S., 2002, Locating globalization: feminist (re) readings of the subjects and spaces of globalization, *Economic Geography*, 78(3), 257-284.
- Purcell, M., 2003, Islands of practice and the Marston/Brenner debate: toward a more synthetic critical human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3), 317-332.
- Sassen, S., 1991, *The Global City: London, New York, Tokyo*,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Silvey, R., 2004,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he gender politics of scale: Indonesian domestic workers in Saudi Arabia, *Singapore Journal of Tropical Geography*, 25(2), 141-155.
- Smith, N., 1993, Homeless/global: scaling places, in J. Bird, B. Curtis, T. Putnam and N. Tickner. Eds. *Mapping the Futures: Local Cultures, Global Chang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87-119.
- 교신: 정현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메일: jung0072@gmail.com, 전화: 02-880-8994)
- Correspondence: Hyunjoo Jung,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ngno, Gwanak-gu, Seoul 151-742, Republic of Korea (e-mail: jung0072@gmail.com, phone: +82-2-880-8994)
- 최초투고일 2015. 1. 12
수정일 2015. 1. 30
최종접수일 2015. 2. 2